

여수에 제1호 전남 블루워케이션 센터 문열어

세계박람회장 국제관 내 일-휴식 양립 거점 기대

제1호 전남도 블루워케이션 센터가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 등지를 들었다. 센터 개소로 여수가 일-휴양 양립 거점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제1호 전남도 블루워케이션 센터 개소식이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한 전남도 및 여수시 관계자와 시·도의원, 프로그램 참여기관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는 섬·해양·산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블루워케이션(Worcation)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지난해 제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여수시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원적근무 참여자에게 숙박시설·공유오피스를 제공

하고 아쿠아리움, 요트프로그램, 아르떼뮤지엄 등의 관광 상품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소한 '전남도 블루워케이션 센터(여수시 공유오피스)'는 여수의 바다를 한눈에 조망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실내공간을 구성, 원적근무에 용이한 시설 환경을 갖췄으며 20명의 인원 수용이 가능한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로 조성됐다.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등은 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 누리집(worcation.sba.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 등 세부내용은 여수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11-12월 약 한 달간의 워케이션 시범운영 기간 127명이 참여하며 사업의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이번 개선된 인프라를 통해 더 많은 참여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호 여수시 수산관광국장은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사업 중 하



제1호 전남도 블루워케이션 센터가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 문을 열었다. 센터 내부 모습. **여수시 제공**

나가워케이션 사업으로 행안부·문체부에서 관련 효과적인 사업들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워

케이션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여수시가 일-휴양 양립 거점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정기 기자**

광양시, 워크온 건기 챌린지

광양시는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5월! 걸어봄 비로소 마음봄'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걷기 챌린지는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걸음 수를 측정하며 일상 속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에서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탭에서 광양시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른 후 목표 마일리지에 쌓일 때까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1걸음당 1마일리지가 적립되며 1일 최대 8000마일리지가 누적된다. 목표 마일리지 달성 시 상품권 응모가 가능하다.

챌린지 참여 시에 반드시 휴대폰 위치 설정을 켜 두어야 하며 챌린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061-797-4037)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23회 대나무 축제 개최

담양군, 11~15일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담양 대나무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개최된다.

올해 대나무축제는 '대숲처럼, 초록처럼'을 주제로 죽녹원 일원 야외무대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객 주도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사의 주 무대를 추성경기장에서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으로 옮겨 관광객들이 먹거리 부스에서 공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쉴 수 있도록 했다.

주 무대 일원에서는 한우를 포함한 30여 개의 먹거리와 청년창업 및 전시체험, 농특산물 판매, 디지털 전시·판매 공간을 마련해 축제장을 채운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물며 축제가 주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야간 콘텐츠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최초로 죽녹원을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죽녹원 일대에는 소망등, 알전구, 반딧불 전구와 무빙 라이트, 대형 달 포토 존 및 유등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야경을 선물한다.

죽녹원 입장권(3000원)은 쿠폰으로 현금해 지역에서 사용을 유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가 시작하는 11일 오전 11시, 라퍼커션 공연을 시작으로 대형 아바타와 퍼포머 행렬 등 축제 개장을 알리는 행사와 함께 오후 4시30분에는 풍물패와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이 열리며 성대한 개막을 알린다. 오후 6시부터는 설운도, 김중국, 소찬휘 등 다양한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드론 쇼로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담양 고향사랑 트롯가요제에 이어 오후 6시부터는 김경호 밴드와 EDM 파티 등으로 축제의 흥을 더하며 13일에는 성악 트리오와 화려한 불쇼가 14일에는 죽녹원에서 구곡순담 100세 잔치와 솔로 탈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전국 청소년 기 페스티벌과 아이돌 크랙시와 SNS로 더 유명한 이짜나연짜나 등의 폐막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담양=신재현 기자**



지난달 30일 나주시가 노안면 장동리 일원에서 조생종 벼 모내기 행사를 펼쳤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조생종 벼 모내기 행사

나주시가 지난달 30일 노안면 장동리에서 올해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조생종 벼 모내기 행사를 가졌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노안면 전준만 씨 농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노안농협 임직원, 노안면 농가

등이 참석해 올해 풍년 농사를 함께 기원하며 고품질 나주쌀 생산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했다.

이날 첫 모내기용 벼품종인 '진옥벼'는 조생종으로 병충해에 강한 특징이 있다. 이른 모내기용 수확이 가능해 태풍

등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노안면에는 30농가, 51ha의 조생종 벼 재배지가 조성돼 있으며 햅쌀 수요량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8월경 수확해 출하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무료 입장

어린이날을 맞아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어린이 무료 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섬진강기차마을은 국내 최대의 기차 테마파크다. 약 24만㎡의 면적에 증기기관차와 꼬마기차, 레일바이크 등 기차와 관련된 콘텐츠가 가득하다.

기차마을 여행의 백미로 손꼽히는 증기기관차는 우리나라 자연하천 중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손꼽히는 섬진강변을 따라 약 20km를 운행한다. 기차를 좋아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번 어린이날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차마을 무료 입장 이벤트는 초등학교 생 이하(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일)에 한해 진행된다.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어린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기차마을에는 기차 외에 다른 즐길거리도 차고 넘친다. 동물농장과 놀이공원, 초콜릿체험관, 오솔랜드, 방 탈출 게임장, 유리온실 등이 아기자기하게 조성되어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자녀를 동반한 가

족 여행에 안성맞춤이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4일부터 6일까지는 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오후 1시와 3시, 매일 2차례 마술&버블쇼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7일부터 개최되는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앞두고 기차마을 내에는 다양한 봄꽃의 컬러풀한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기차마을을 찾은 A씨는 "요즘 아이가 기차에 푹 빠져서 아이와 함께 방문하게 됐다. 무료 이용 시설도 많고, 공원도 형형색색 다양한 꽃으로 꾸며져 있어서 정말 좋았다. 이번 어린이날에도 한 번 더 방문할 생각이요, 장미축제 때에는 부모님과도 다시 한 번 울까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멸종위기생물 대모잠자리 발견 함평나비축제장 인근 습지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대모잠자리 12개체가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리고 있는 함평엑스포공원 인근 함평천 수변공원 습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순천향대학교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융합연구소(소장 이용석)가 영산강 유역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조사하던 중 함평천수변공원 인근습지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대모잠자리 12개체를 발견했다.

대모잠자리는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됐으며, 갈대와 같은 수생식물이 많고 유기물이 풍부한 갯벌·연못·습지 등 정수 지역에서 서식한다.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융합연구소 정현천 교수는 "함평천수변공원은 생태하천과 습지와 수목이 풍부해 안정적인 생물 서식공간을 제공한다"며 "기후 온난화 등으로 나비를 포함한 곤충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이때, 개체 수를 파악하는 정밀조사와 함께 장기 계획에 의한 생태복원으로 이어진다면 사계절 곤충관찰이 가능한 전국 제일의 자연교육 모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국립장성숲체원, 어린이날 행사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장성숲체원이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4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날 맞이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장성숲체원을 포함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 8개소에서 개최 예정이다.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숲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마련했다. △가족사진 압화 액자 만들기 △편백 향기 추억 담기 △플라워 컬러링 업서 만들기 △곤충 바람개비 만들기 △숲의 소리, 나무 오르골 만들기 등 총 5종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